

**한나라의 국민이 도서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그 나라의 문화는 퇴화하고
국가적번영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문화실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다. 이런 계절에 무언가 일을 한다는 것은 보통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닐 것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에서 시원함을 찾을 일이다. 그래도 《도서관문화》는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어야 하니, 이 '30년 전 우리는' 코너도 쓸 수가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30년 전에도 역시 8월에는 특별한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짧게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예쁘고 즐거운 소식.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학과가 여름에 하계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세익 교수(지난 달 본지에 최성진 교수께서 김 교수님에 대해 자세히 쓰신 바 있다.)께서 학생 8명을 인솔하여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강원도 삼척군 원동면 원내리 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당시 기분을 그대로 살리려고 이렇게 쓴다.)에서 하계봉사활동을 했다고 한다. 물론 대학생들의 하계봉사활동은 주로 농활(농촌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행사이기는 하

다. 그러나 도서관학과의 특색을 살렸다는 점에서 새롭게 다가온다. 봉사활동반은 국민학교에 책 350권을 기증하고 이를 일일이 분류하고 편목해서 완전히 정리까지 해 주었다. 여기에 더해 도서관 운영방법도 지도했다고 한다. 또한 학교로 돌아온 후에는 월간지 3종을 1년간 볼 수 있도록 구입해 보냈다고 한다. 이렇듯 봉사활동을 계획한 이유는 벽지 학교에 근대적 의미의 학교도서관을 설치해 보는 시도를 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으며, 겨울에는 행형(行刑)도서관(교도소도서관일 것이다) 개발을 시도해 보고자 온 양소녀원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식은 전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한 여름 산간벽지에서 아이들과 책을 가지고 함께 하는 모습을 떠올려본다. 시원한 바람이 책장 사이를 지나다니고, 아이들과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웃고 즐겼으리라. 그런 여름이 지금에도 어디엔가 있을까? 지금은 문헌정보학과에서 이처럼 자신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형태의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강남대학교에서는 김승환 교수의 지도로 매년

여름 독서캠프를 연다고 듣고 있다. 땀 흘리며 사람들 속에서 도서관을 배우는 자세라면 우리 도서관 사서들의 정체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30년 전 여름의 무더위를 식히는 한 줄기 소낙비 같은 소식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8월 31일자로 《한국의학도서관》이라는 제호의 소식지를 창간했다고 한다. 이 잡지는 협의회의 기관지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발행된 의학도서관 관련 전문지이다. 의학사서들을 위한 연구지면서 의학사서들의 교육을 돕는 의미도 크게 부여되었다. 창간호에는 당시 회장이시던 고 윤덕선 한림대학교 이사장의 창간사와 의학도서관 업무 관련 논문 4편이 실렸다. 이 기관지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의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원문도 볼 수 있다. 아직도 우리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별 또는 관종별 전문학술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30년 전 의학도서관 관련 전문지를 발행했고 지금까지도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당시 우리 협회 손성우 이사가 8월 30일 『韓國地名辭典』을 편찬하여 경인문화사에서 출판하였다. 사전 편찬은 매우 어려운 일로 손 이사도 수년간의 작업 끝에 국내 최초로 지명에 관한 사전을 발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 사전은 남한 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1만여 지명을 수록하고 있다. 4×6배판 크기에 782쪽 양장본으로 출간된 이 사전은 이후에도 계속 쇄를 거듭하다가 2000년 재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도서관은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과 정보의 집합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적어도 이같은 참고도서들은 도서관인들에 의해서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된다. 한편 초등학

생들이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4월부터 휴지나 고철, 빈병 등 폐품을 수집하고 칩과 아카시아 잎 등을 채취해 도서관 건축기금으로 24만여원을 마련하자, 이에 감동한 동창회장이 동창회원으로부터 80여만원을 모금하여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했다는 소식도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그 학교는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갈산국민학교로, 마련한 비용으로 학교 뒤뜰에 건평 21평의 콘크리트 단층 건물에 열람석 60여석과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마련하고 8월 4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한다. 도서관을 갖게된 학생들은 책 1천권을 목표로 계속 폐품수집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지금에야 책 1천권이 대수롭지 않을 것이나 당시 책을 읽고 싶어 폐품 수집을 했을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엿한 사회의 중견인이 되었을터인데... 지금 그 학교에 도서관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번 글을 쓰기 위해 《國會圖書館報》 7·8월 합본호를 찾아 보았다. 무엇보다도 잡지 말미에 ‘中共刊行物目錄’을 신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고구려사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 당시 국회도서관보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가 간행한 『Directory of Selected Scientific Institutions in Mainland China』의 내용을 발췌, 조사해서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왜 했을까? 짐작컨대 당시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에 관한 자료목록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도서관이 한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으나, 뭐라해도 그 사회의 중심 의제에 대해 도서관다운 참여를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충실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이 아닐까 한다. 그러한 참여방식은 일차적으로 잘 만들어진 목

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계 잡지는 물론 필요하다면 단행본 형식으로라도 우리 사회가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자료나 정보에 대한 성실한 목록작업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國會圖書館報》는 특집으로 종합목록과 상호대차의 문제를 다루었다. 영원한 도서관계의 숙제인 이 문제가 지난 30년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추적해 보는 일도 의미있고 재미있을 것 같다. 과제로만 남겨둔다.

무더운 한 여름 8월에는 짧은 글로 마무리한다. 마무리하면서 《國會圖書館報》 7·8월 합병호에 실렸던 권두언 중 한 구절을 되새겨본다. 그 호 권두언은 현오봉(玄梧鳳) 유정희·국회건설위원장이 썼다. “인간이 음식을 못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한나라의 국민이 도서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 그 나라의 문화는 퇴화하고 국가적번영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문화실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모두 바꾸었다.) 그렇게 애절하게 도서관 발전을 외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은 문화실조에 빠지지 않았는가? 우리의 새로운 시각과 실천이 요구되는 결실의 가을이 다가온다. 정신없이 더위를 피해 다녀온 휴가의 남은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제 무더위를 견디면서 맺어낸 알찬 결실을 챙겨볼 때이다.

어느 날 원로 선배이신 정병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필자의 글을 읽고 관심있게 읽고 계신다고 하셨다. 후배로서는 더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선배께서는 기억을 더듬어 지난 일곱 번의 글 가운데서 당신의 기억과 틀린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그런데 필자가 가진 자료, 즉 《도협월보》나 《도서관》에 의하면 틀렸다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렇

다면 기억과 자료 가운데서 어느 것이 맞지는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 할 일이 된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어 일단 필자가 본 자료의 내용을 따라 수정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언젠든 틀린 부분이나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은 즉각 고쳐져야 한다.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하면 또 기꺼이 고칠 것이다. 자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기억들은 더 늦지 않게 기록으로 남겨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록하기 어려운 기억들이 존재했을 지도 모르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고,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되어 후배들에게 넘겨져 지난 날의 기쁨과 아픔, 성공과 실패를 되짚어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이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선배들의 발자취를 찾아 그 열정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더할 나위없이 큰 기쁨이다. 원로 선배께서 직접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것 또한 무한한 영광이다. 선배님과의 대화에서 지난 3월호에 “단순하게 ‘變’ 이라고 적어두었는데, 누구일까?”라고 한 부분에서 ‘變’ 이 엄대섭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으로 민중이 눈 뜨는 날, 이 한 조각 낯서는 어찌 순금에 비기리”라는 열정의 글을 남기신 선배의 발자취를 확인했을 때의 기쁨이야말로 무더위도 이겨내게 하는 깊은 샘물에서 길어낸 물 한 모금이다. 후배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메꾸어 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린다. ·KIA

[글 :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